

일 지역주민의 죽음관과 돌봄행위*

고 성 희** · 이 영 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죽음은 인간 누구에게도 닥치는 문제이며 이는 삶의 문제와 인간의 본질에 관한 질문과 관련된다. 죽음 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사고 및 행위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죽음관은 그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며(김열규, 성현경, 조옥라, 정하영, 박용옥, 조혜정, 이부영, 주종연, 김기웅, 김병모, 권오성, 이보형, 오세영, 강진옥, 이상일, 황루시, 서경수, 정진홍, 1991), 죽음과 관련된 돌봄행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간호대상자의 건강과 돌봄에 대한 가치, 신념 및 행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돌봄 요구를 이해하고 돕는 것은 전인간호에 필수적인 부분이다(Leininger, 1978, 1985). 죽음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속한 문화권내에서 죽음에 대한 관념을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돌봄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돌봄행위의 표현, 의미와 패턴 또한 문화적으로 유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돌봄은 인간 고유의 특질이라는 관점, 즉 인간의 성장, 생존 및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죽음과 불능에 직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돌봄이 한국의 사회문화에서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인간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질적인 삶을 보장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전문직 간호를 위해서 간호사들은 대상자의 경험에 더불어 참여하면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돌봄 잠재력을 보다 전문적인 방식으로 실현시켜야 한다. 따라서 대상자의 경험에 동참하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념과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간호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전문직 간호가 돌봄행위와 돌봄의 속성들을 체계화한 지식체이자 이를 전문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라면, 민간 차원의 돌봄은 인간의 신념과 가치를 근거로 하여 돌봄 잠재력이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과정이자 결과이다. 그러므로 인간 고유의 속성으로서의 돌봄의 잠재력이 민간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밝히는 일은 지식체로서의 간호 학문이나 실천과정으로서의 전문직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죽음관 및 돌봄행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문화의 한 단위로 간주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연구가 요청됨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본 연구는 대상자들의 죽음관과 죽음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돌봄행위 및 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죽음 상황에서의 돌봄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들의 준거에 맞는 돌봄을 제공하며, 우리 문화에 맞는 돌봄이론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199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2. 연구 문제

일 지역주민의 죽음관 및 돌봄행위는 무엇인가?

II. 문헌 고찰

죽음과 임종은 간호분야를 위시한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온 지 오래된 주제이다. 국외에서의 죽음과 임종에 관한 연구는 전쟁으로 죽음과 임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여러 학문분야에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1960년에서 1970년 사이에는 Glaser와 Strauss의 연구를 위시하여 죽음과 임종에 대한 개인적, 대인간, 사회적 의미에 대한 지식발달에 기여하는 연구들이 나왔으며, 1970년에서 1980년에는 만성질환 및 암의 영향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급증되었고, 1980년 이후에는 죽음과 임종은 물론 돌봄제공 또는 돌봄제공자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Benoliel, 1994). 이상과 같이 국외에서 죽음과 임종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시행되었으나 (Gates, Kaul, Speece, & Brent, 1992; Lindley-Davis, 1991; Robbins, Lioyd, Carpenter, & Bender, 1992; Seale, 1992; Smith & Maher, 1993 등), 이 연구들은 죽음에 대한 태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 지지, 의사소통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양적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간호분야에서 이루어진 질적인 연구접근으로는 환자의 임종과정에 있어서의 경험(Hasselkus, 1993; Jones, 1993), 환자 가족이나 간호사의 비통경험(Brabant, Forsyth, & Melancon, 1992; Spencer, 1994), 간호학생의 죽음과 관련된 이미지 또는 경험과 지각(Johnson, 1994; Kiger, 1994), 간호사, 환자, 친척들이 암환자를 간호하면서 경험한 좋은 죽음의 의미(Hunt, 1992), 환자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말기질환자의 간호에 대한 평가(Bergen, 1992)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죽음, 임종, 비통 등을 주제로 하여 환자, 보호자, 간호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상학적 방법, 문화기술지, 사례연구 등의 방법으로 연구되었거나 질적·양적 방법을 결합시킨 접근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국내에서도 역시 죽음과 관련된 간호연구로는 죽음과 임종에 대한 태도 또는 의식을 다룬 연구가 가장 많았는데, 전공의, 의대생, 간호사, 간호학생 등의 간호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권혜진, 1980; 조영숙, 1976), 성직자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옥자, 1982), 성

인, 노인 등 일반인 및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길숙영, 1993; 김커분, 1977; 김순옥, 1992; 이효경, 1985; 장미란, 1981),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영순, 1989; 유계주, 1974),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박석춘, 1992) 등이 있었다. 그 밖에 죽음에 대한 불안 또는 공포를 다룬 연구(김혜련, 1991; 박재현, 1990; 이수창, 1993), 임종시 간호요구를 다룬 연구(이영애, 1983),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된 연구(박혜자, 1989; 왕매련, 조원정, 김조자, 이원희, 유지수, 1990; 왕매련, 1992) 등이 수행되었다. 김순자, 김지아, 및 심혜중(1991)이 국내 간호학 및 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보고서를 조사한 결과에 의거해 볼 때 죽음관련 연구는 간호학계의 총 발표논문 0.98%로서 극히 저조한 편이었으며, 간호사에 의해 발표된 논문은 임종과 죽음의 태도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임종간호를 다룬 연구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죽음과 임종에 관한 연구들은 태도 또는 의식을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루며, 서술적 조사연구와 비교 조사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죽음을 실존적 문제로 인식하여 실제 임종을 맞이하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임종경험, 삶의 질과 적응과정을 파악한 연구(최공옥, 1991), 암으로 자녀를 잃은 가족의 경험을 다룬 연구(이정섭, 1992), 죽음을 앞둔 암환자의 돌봄에 관한 문화적 측면에서의 연구(원종순, 1994), 말기 암환자의 체험을 다룬 연구(이옥자, 1995) 등 간호대상자 및 간호제공자의 경험과 의미를 탐구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김순자(1994)는 Q방법론을 이용하여 한민족 노인의 죽음 정위(death orientation)를 연구하였는데 이는 죽음 체계의 주관성, 다면성, 포괄성을 고려하여 죽음에 대한 주관적 의미를 측정함으로써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관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제 죽음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한국인들이 죽어 가는 사람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줄 실제적인 죽음 상황에서 종합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는 총체적 맥락에서의 연구를 통해 가능하며 죽음과 임종 간호를 안내할 만한 죽음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한 종합적 이해를 위해서는 문화기술지를 이용하여 문화 체계 내에서 죽음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지역 주민들의 죽음관을 파악하고, 어떤 돌봄행위를 하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탐구하기 위해 문화기술지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문화란 그 집단 구성원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집합적 현상으로 본다. 본 연구의 탐구과정은 다음과 같다(Wilcox, 1982). 현지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모으고 관찰하여 해석한다. 연구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의미를 사정하기 위해 관련된 이론적 지식을 사용하며 진행시키고, 문화적으로 추정을 하여 구조화하고 기술한다.

2. 연구지 및 연구대상자 선정

본 연구 지역은 전북 부안군에 속해 있는 한 섬으로 다른 지역의 섬보다 민속문화가 비교적 덜 훼손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김은정, 황재운, 허성철, 김무열, 김태홍, 윤더창, 이원구, 이정더, 장효, 1995; 차효길, 바대순, 정중수, 정승웅, 김중대, 1984, 1985, 1987) 본 연구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기에 적합한 곳이라 생각되어 선정하였다. 연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 기타 행정 요원들의 도움 및 연구지역을 잘 알고 있고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있는 인류학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1996년 7월 22일부터 1997년 9월 30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행정구역 마을을 대상으로 접근가능성, 허용가능성, 참여가능성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지역 행정가 및 이장의 추천을 받은 후 각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연구를 위한 안내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며 연구참여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주제보자 4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어 연구에 기꺼이 참여하며 연구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성인 남녀 17명을 선정하였다.

3.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고려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고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구두 허가를 받았다. 연구참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며 사적인 비밀 보장을 할 것과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자료수집 도중 면접과 관찰을 꺼릴 경우

연구참여자에게서 제외시켰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1)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 방법은 참여관찰과 면접을 주로 사용하였다. 면접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허락을 얻어 녹음하였고, 참여관찰은 연구자의 입장을 지키면서 관찰자로서 참여하거나 참여자로서 관찰함으로써 선입견을 배제하였고 필요시 비디오 카메라와 카메라를 이용하였다.

자료수집은 자료가 포화(saturation)될 때까지 하였는데 1997년 10월부터 1998년 7월까지였다. 자료수집은 총 10회를 실시하였으며, 짧게는 2일부터 길게는 10일간에 걸쳐 연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Spradly(1989)가 제시한 영역분석, 분류분석, 성분분석, 주제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지조사를 통해 나타난 자료를 분석하였을 때 죽음의 원인, 죽음의 양상, 돌봄담당자, 돌봄 양상 등의 영역이 나타났으며, 이는 크게 정상적인 죽음과 비정상적인 죽음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행해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집중 관찰과 면접을 하여 성분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나타나는 돌봄 양상이 어떤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가는 주제분석을 행하였다.

2) 자료의 타당성 확인

본 연구는 10회의 자료수집 과정을 통해서 자료수집과 분석을 순환적으로 시행하였고,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자료수집에 대한 정확성과 확증성을 높이기 위해 관찰하고 면접한 것을 연구자 두 사람이 연구기간 내내 상호 논의하면서 합의의 도출함으로써 연구결과의 내용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타 분야 및 간호학 분야의 질적 연구 경험자에게 연구결과를 검토하게 하여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지의 배경

연구지역은 행정구역상 전북 부안군에 속해 있는 섬으로, 30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13.95km²이며 8개의 법정리와 11개의 행정리로 편성된 면 단위 도시이다. 본 연구는 주(主) 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예비조사 시기인 1997년 7월을 기준으로 볼 때 연구지역의 가구수는 총 471가구, 주민수 1,323명(남 660명, 여 663명)이었다. 주민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50-60대, 40대, 70대의 순으로 많다. 주민들은 과거부터 섬에서 살아왔고 혼인이 도내에서 이루어진 관계로 마을 주민들이 가깝게 또는 멀게 친·인척 관계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지역은 과거에 조기가 많이 잡혔던 곳이었으나, 현재는 멸치잡이, 새우잡이, 김양식이 주요 소득원이며 그 외에 바지락 등을 양식 또는 채취하고 있는데, 전체 섬의 연평균 소득은 약 1,136만원이다. 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가 2개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하나씩 있다. 마을 주민들의 대다수가 아직도 무속적인 기복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일부는 교회나 절에 다니고 있는데, 도내에 교회가 3개, 절이 1개 있다. 의료시설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그외 약양과 한약을 판매하는 약방이 있다. 교통편은 육지에서 정기여객선이 1일 4-6회 운항되고, 소요시간은 40여분이며 대부분의 가정에 TV가 있어 외부의 문물을 빨리 접할 수 있다. 냉장고, 세탁기, 전화 등도 대다수 집에 가설되어 있다. 이 곳은 철마다 천신을 달래 주는 행사가 있다. 마을의 태평과 풍어를 기리며 온면민이 협동하여 연례적으로 행하는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돈독히 하는 토속적인 신앙굿, 띠밧놀이, 당제, 위령제 및 풍어제 등이다.

2. 죽음관

1) 정상적인 죽음

이 지역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갑작스런 죽음이 많았으며, 의료시설이 없고 육지와와 왕래가 어려워져 질병에 이환되면 거의 사망하였다. 그러므로 좋은 죽음이란 장수하고, 자손이 많고, 자손 중 죽은 자가 없어야 하고, 자기 집에서 죽어야 하며, 몸살병에 들지 않고 지친이 모두 다 모인 자리에서 죽는 것이며, 이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호상(好喪)의 조건이다. 또한 초상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잘 치상해 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덕을 많이 쌓아야 한다.

이들은 무속, 불교, 기독교를 가지고 있지만 내세관은 분명치 않다. 이 지역에서의 상여소리를 들어보면 '극락세계'를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죽으며 끝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는 이들의 생업이 어업이다 보니 갑작스런 죽음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인 것 같다. 묘사이는 무속이 비신으로 취급되고 이 지역을 관상하던 무녀도 사망하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들은 말로는 죽은 후 천당간다고 하지만 현세 발복적인 사고가 더 강하다.

이들의 죽음관은 가능한 자연사하기를 바라며, 자연사해야 조상신으로 대접받을 수 있고, 자손과 함께 영원히 존속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육체보다는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혼을 중시하며 이러한 사고는 매장의 초분관습에서도 나타난다. 현재는 매장 형태가 변했지만 혼이 깃들여 있는 뼈를 중시하는 사고는 아직도 남아 있고, 관을 쓰지 않는 등의 장제 형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명당을 중시하는 사고도 계속 남아 있다. 이러한 것은 결국 산 사람 중심의 발복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매우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것을 알 수 있다.

2) 비정상적인 죽음

과거 이 마을은 인간의 일상사, 삶과 죽음 등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의 고미나나 고통을 겪었다. 즉 성주신, 조왕신, 조상님을 일상생활에서 신으로 섬겼고, 잘 섬기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여겼으며, 이 때문에 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다고 믿었다.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신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자연사를 제외한 죽음에 있어서는 그 죽음의 원인을 초자연적으로 분석하고 의지하였다. 이러한 죽음은 부정타기 때문이라고 믿으며, 부정은 마을공동체에서의 급기 사함을 어겼을 때도 해당되지만 죽음과 관련된 물건들, 예를 들어 상여나 운상할 때 사용하는 열나무대 등도 부정한 것으로 보아 이를 잘못 다루면 부정타는 것으로 여겼다. 육지와와 왕래가 더 잦아지면서 기존의 사고가 일부 변하기도 했지만 계속 유지되고 있고, 의학적인 단이 내려진 죽음에도 그 원인을 절대적인 힘, 신성에 의지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 두려워하는 비정상적인 죽음은 바다에서 죽는 죽음으로써 시체도 찾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중복' 걸리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이는 죽은 사람의 시신이 부드럽고 얼굴이 노랗게 될 때를 말하는 것으로 기대했던 정상적인 죽음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그 외에 객사(客死)하거나, 미혼의 죽음도 부정한 죽음이다. 이들은 모두 부정한 죽음으로 원령이 되어 산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와 같이 약간이라도 정상에서 벗어난 죽음은 그 원인을 '부정' 때문이라 여기며 초자연적 현상, 절대적 신성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죽은 사람을 이용해 산 사람이 그 의미를 부여하고 만들어 가는 것으로 산 사람 중

심의 사고를 보이는 현실적인 측면이 나타난다. 또한 죽음은 죽은 사람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그 가족의 사건, 그 공동체의 사건으로 확대되고, 죽은 개인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그 후손을 위한 삶과 죽음으로 모든 것이 해석되고 있다.

3. 죽음상황에서의 돌봄

죽음상황에서의 돌봄은 임종과 장례 과정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1) 정상적인 죽음에서의 돌봄

정상적인 죽음이란 호상(好喪)의 조건을 갖춘 죽음을 말하며 대개는 자기의 명대로 살다 죽은 노인들의 죽음이 여기에 속한다.

- 가족에서의 돌봄

정상적인 죽음에서 돌봄 대상은 대개 노인들이므로 자식들이 육지에 나가 있는 경우 대개 배우자가 돌보게 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돌보는 것이 문제가 된다. 저식(이들)이 같이 있는 경우는 주로 며느리가 돌보게 되며,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돌보게 된다. 딸도 없는 경우는 시집 조카들이 돌본다. 이는 혈족이 우선시 되고 남계친 중심의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임종은 경험이 많은 노인을 불러다 지키게 하고 임종을 선언하게 한다. 임종을 하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와 같이 안방으로 모시며 평소에 입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다. 이래야 저승길이 밝다고 하는데 이는 집안의 어른으로서 존엄성을 갖추기 위한 것 같다. 가족, 자손들은 모두 앉아 종신을 해야 하며 그래야 진정한 효자가 될 수 있다. 또한 곡을 많이 해야 부모의 저승길이 밝다 하는데, 초상, 운상시까지 곡을 하다가 매장할 때부터는 웃고 떠들고 한다. 또한 곡하는 것도 각자 망인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한다.

초상나면 고복(梟復)하고, 소렴, 대렴, 성복제 등을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장례와 똑 같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많이 약소화되고 간단하게 형식만 갖추어 하였는데, 이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없고 생활 형편상 다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과거에는 초상시 임종 후 즉시 시신이 굳기 전, 대렴 전에 성복제를 지내 후 망인의 천도를 위한 셋김굿을 하였다고 한다. 이는 자식의 도리로 좋은 데도 가라는 천노의 역할도 하지만, ‘뒤통없이 해달라는 맥이지’ 하는 말을 볼 때 산 자에

게 해를 입히지 않게 해달라는 산자 중심의 사고에서 행해지는 것이기도 한다. “여그서는 관을 안써요. 옛날에 지취기 생긴디고 그래갔고… 벌레 자취다는게 자기 묘뻘 상당히 다 먹은 다음에 자기 집안 기둥뿌리까지 와서 파먹는다고 옛날부터 전설이 있어갔고…”라는 한 주민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과거 초분을 만들고 탈육한 후 뻘만 이장을 하였는데 지금도 뻘을 중시하여 관을 쓰지 않는다. 이는 망자에게도 좋지만 산자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에서라고도 한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과거부터 초상 때 여자(딸, 며느리)들이 산소에 같이 가고, 거리제할 때는 여자들이 상여를 메기도 한다. 이는 ‘예’를 다하고 ‘효’를 한다는 입장이 있겠지만, 남자들이 바다에 나갔을 때 초상이 나면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원되었고 또 그를 위하여 언급목적으로 그러서 많았는가 생각된다.

보통 빈소는 마루위에 차려지게 되며 마루 위에는 망인과 상주만 올라갈 수 있고, 문상객들은 마루 아래에서 절을 한다. 보통 나이 많은 노인들은 문상을 다니지 않으며 문상을 갔을 경우 망인이 손아래 사람이라 하더라도 망인에 대해 슬을 따르고 절을 친다. 이는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것 같다. 문상객에게는 음식을 아주 푸짐하게 대접하며, 못사는 사람이라도 문상객 대접은 아주 잘한다고 한다. 이는 동네 사람들을 위한 잔치의 기능을 하기도 하여 한쪽에서는 곡을 하고, 한쪽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이를 통해 볼 때, 죽음상황에서의 돌봄에서 망인은 예를 갖추어 존중되며, 돌봄은 혈육중심, 남계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가족 내에서는 ‘효’에 입각한 것 같지만 그 강도가 약해지고 있으며 산자 중심의 현실적인 측면도 보인다. 또한 개인의 죽음은 사회적 죽음, 공동체의 죽음이 되고 있다.

마을에서의 돌봄

이 마을에서 초상이 나면 위친계를 중심으로 활동이 시작된다. ‘이 지역은 바다일이 많기 때문에 바다에 나갔을 때 초상이 나면 누가 와서 해 줄 사람이 없어요. 또 서로 바쁘고, 가리는 것이 많아 서로 협동이 안돼… 그래 의무적으로 두레계를 만들었지요…’라는 한 주민의 진술에도 나타나 있듯이, 과거 이 지역에서 위친계의 역할은 중요했었다. 위친계는 주로 같은 부락내의 구성원들끼리 많이 하는데, 보통 성장년기에 부모와 사신을 위한 위친계를 1-2개씩 가입한다. 다른 부락민이 계원으

로 참여하는 경우는 아주 친분관계가 두텁거나 친·인척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지 사람들이 많은 부락은 섬내의 사람들과 위친계를 형성하지 못하였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문상하고 초상시 서로 도와준다. 위친계원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운상으로 과거에는 운상 전날 밤 빈상여 놀이를 하면서 발도 맞춰보고, 놀기도 하고 상주도 위로하는 기능을 했다. 발인 날에는 거리제를 한다. 거리제는 상여나간 때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특히, 친·인척 집에서 제사상을 내어오며 애도하고 망인이 친·인척들에게 하직인사를 하는 것으로 이 음식은 그 자리에서 다 나누어 먹는다.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이 다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친척집마다 음식을 장만하였으나, 요사이느 상주집에서 준비를 하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형식은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은 이를 통해 동네 잔치로서의 기능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거리제들 동안 하직인사를 끝으로 산소로 간다. 아직도 명당을 잘 잡아야 한다는 의식은 강하게 있어 자리를 잘 보는 사람을 불러다 터를 잡고 방향을 잡는다. 그러나 발인제부터 매장을 다 하고 산소에서 제를 드릴 때까지,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 하는 것은 거리제인 것을 볼 때, 아직도 공동체적인 성격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죽음을 통해 삶의 무상함도 느끼지만, 또한 초상 잔치, 장례 의례 등의 공동체적 돌봄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며, 죽음은 삶의 기반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외지로 나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계원들이 나이 들어 사망하게 되자 위친계 계원의 숫자가 감소되고, 또한 교통이 발달되고, 장례가 간소화되면서 돈을 주고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위친계원들의 할 일이 감소되었고, 따라서 위친계의 역할도 많이 감소되었다. ‘옛날에는 계원들이 다 제일처럼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와서 자리만 채우고... 의리가 없어요’ 하는 주민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은 위친계를 통한 공동체 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대신 종교의 형태에 따라 각각 다른 소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요사이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임종과 죽음시 자기들끼리 도와주고 있어, 위친계의 기능을 감소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마을 주민들은 이야기한다. 탈상도 5-6년 전부터 어느 한 집에서 3일 탈상을 하였는데, 그 후부터 섬 전체가 아무 갈등 없이 3일 탈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자신들에게 편리하고, 이득이 되는 것은 전통 등을 운운하지 않고 쉽게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과거에는 죽음이 발생하면 임종 전까지는 주로 가족이 돌보는 기능을 담당하다가, 임종 후에는 마을—주로 위친계를 중심으로 돌봄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돌봄을 통해 개인의 죽음이 공동체 죽음으로 되며,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삶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었다. 지금은 죽음이 발생하면 그 집의 종교에 따라 장례의 형식이 진행되면서 돌봄이 결정된다. 또한 가족의 기능도 약화되고, 위와 같이 위친계의 기능도 약화되면서 마을 중심의 전체적인 공동체 의식은 약화되고 소그룹의 다른 공동체들이 형성되고, 특히 과거 멸시받던 부락들이 상업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자기들끼리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적 보다는 개인적인 죽음의 의미가 강하게 부각되고, 돌봄에 있어서도 형식적이고 일률적인, 상업화의 영향이 도래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이 지역이 내세를 중시하는 것보다는 현실지향적인 성향이 강했지만, 양승체 의식이 약화되고 상업화되면서 망자 중심의 돌봄보다는 산 자 중심의 돌봄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다.

2) 비정상적인 죽음에서의 돌봄

비정상적인 죽음에서의 돌봄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산 자 중심의 돌봄이 잘 드러난다. 비정상적인 죽음에서의 돌봄은 정상적인 죽음에서의 일반적인 절차나 의례를 따르면서 덧붙여 ‘부정막이’를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부정막이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 가족의 돌봄

비정상적인 죽음을 한 경우, 그 혼은 원령이 되어 자손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믿어 그들의 원을 위로해 주고 천도해 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바다에서 죽은 귀신을 위하여 매해 정월에 당제 지내고 난 후, 자기 조상 중에 수사(水死)한 귀신이 있는 집은 선창에 상을 놓고 제사를 지낸 후, 제물을 바다로 던져 ‘유왕보낸다’ 하는데 이는 수사한 귀신이 먹으라는 의미라 한다. 또한 바다에서 죽었을 경우는 시체를 찾았어도 무너를 불러다가 ‘넋건지기(건장)’을 한다. 넋건지기는 사고가 난 지점의 바다에서 하는 것으로 혼이 그곳에서 갑자기 자기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 사람은 그걸 안하곤 못건더요... 그래야 죽은 사람 한을 풀어주지...’ 실제로 무너가 굿을 하면 시신의 머리카락이 나온다고 한다. 그 머리카락으로 무덤을 만드는데 이를 ‘헛장’이라고 한다. 이는 죽은 사람의 ‘한’을 풀어주지만, 산사람의 한도 풀어주

고, 특히 죽은 사람의 한을 풀어 산사람에게 해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자손들이 까닭없이 아프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죽을 때는 묘를 잘못 썼다고 생각하여 날과 시를 잘 받아 명당에 이장을 한다. 또한 중복결렸을 경우, 특히 자손에게 안좋은 일이 생겨 집안이 아주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럴 경우 상여나갈 때까지는 무너를 불러 중복막이를 해주어야 한다. 중복막이란 닭의 난개와 다리를 묶어 시신 가슴에 놓고 굶을 한다. 닭이 울 때 까지 하루고, 이틀이고 하며 닭이 울어야 상여가 나갈 수 있다. 이것을 못하였을 경우, 대렴할 때 시신 가슴에 복쟁이 생선을 넣고 매장하며 무너를 불러와 산소에서 중복경을 읽어야 한다. 이 지역 사람들은 닭이 원래 새벽에는 울기 때문에, 그냥 방편막이로 닭을 쓴 것이 아니겠냐고 무슨 효력이 있었겠냐고 하면서도 집안이 결단나는 큰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경우 아직도 실제로 중복막이를 하며, 돈이 많이 들어도 무너를 불러와 중복경을 읽는다고 하였다. 복쟁이 생선을 넣는 것은 생선의 이름 때문인 것 같다.

결혼은 했으나 자손이 없이 일찍 죽은 경우 그를 아는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제사를 지내준다. 이는 원혼이 되어 해를 미칠까봐 걱정이 되어서 인 것 같다. 미혼의 죽음, 객사를 한 경우도 무너를 불러다가 천도제를 지내준다.

이와 같이 약간이라도 정상에서 벗어난 죽음이나, 현상은 다 부정한 것이라 여겼고 해로운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그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 해석을 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설명 체계와 의식을 발달시켜 나갔다. 이는 과거 무녀의 활동영역이 매우 넓었음을 실감케 한다. 자신들에게 편리하고, 이익이 되는 것으로 쉽게 변할 수 있었던 이 지역 사람들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설명체계는 아직도 고수하고 있었다.

-마을에서의 돌봄

이 지역은 특히 바다에서 집단적으로 많이 죽었을 때는 제막을 세우고, 위령제를 지내 준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마을에 또 다른 참사가 생긴다고 믿기 때문이다. 최근 객선 사고 후 또 다른 위령탑이 세워졌고, 매해 사고난이 되면 위령제를 지낸다. 주관은 유족 대표가 돌아가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이 지역 주민들에 의한 행사가 되고 있는데 그들의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바다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은 더욱 철저히

지킨다. 예를 들어 전술한 위령제는 마을 전체가 풍어제라는 의례를 취하면서 지내어 지고 있다. 시기가 일정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5월경 어망이 한가할 때 마을마다 돌아가며 지낸다. 그러나 최근의 객선사고의 위령제는 사고가 난 날을 꼭 지켜서 지낸다. 이를 볼 때 자신들이 접한 사건이 더 각인되어서 그런 것 같다.

특히, 이 지역은 매해 음력 정월이 되면 당제를 지낸다. 예를 들어 행정시설이 있는 '가' 부락은 다른 마을과는 달리 산제를 지내고 도청곳(도청곳은 옛날 관아자리에서 굶을 지내는 것으로 이곳에서 죄인으로 끌려와 맞아 죽은 자들의 혼을 위로하는 굶을)을 하고 있으며, '나' 부락에서는 위령제를 지내고 있고, '다' 부락에서는 △△놀이(△△ 놀이는 이 마을의 당제의 한 형태로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빌던 행사임)로 자기 마을 당의 영험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당제의 기능이 마을의 안녕을 위하는 것이기 노 하지만 이를 통해, 마을 구성원들이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한다. 부락 사람들은 자기 마을의 당신이 가장 영험하다고 믿고 있다. 그리하여 당제를 모실 때 그들의 금기 규례를 잘 지켜야 부정을 타지 않는다고 한다. 부정을 타면 죽음 등 안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 부락마다 모두들 그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행하는데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철저히 지키는 부락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락이 있었는데 외부인의 접촉이 많고, 상업화가 많이 된 부락일수록 형식적으로 지켜지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많았다.

이러한 당제는 각 부락의 안녕을 위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지만, 그럼으로써 또한 서로 배타적이게 만들기도 한다. 이 지역은 아주 적은 섬인데도 불구하고 각 부락마다 각각의 당집이 있고, 당신이 다 다르다. 또한 당제를 지낼 때도, 각 부락 입구와 다른 부락으로 넘어가는 지점에 당산나무를 지정해 두고 그 곳에서 제를 올린다. 이는 마을의 경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 같고, 자기 마을에는 다른 부락의 잡신이나 질병이 들어오지 못하게 액막이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각 부락의 우물이 있는 곳에서도 제를 올렸는데 이러한 것들은 과거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이 많았을 때 다른 부락에서 오는 질병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 같다. 그러나 각각 다른 당신을 모시며 당제를 드리는 것을 볼 때, 어떤 절대적인 신성에 의한 것 보다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개별적인 이익에 의해 조정되는 것 같다.

이와 같이 이 지역 사람들은 자연적인 환경조건으로 죽음을 순수히 받아들이기보다는 갑작스런 죽음을 피하는 것이 많이 요구되었고, 그리하여 현실적이면서도 확

실히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무너에 의한 여러 가지 의식이나 의례가 성행하였던 것 같다. 이는 망인을 위한 죽음관과 돌봄보다는 살이있는 자들의 죽음관과 현실에 의해 돌봄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집단적으로 많이 죽은 경우는 온 마을 전체가 같이 제를 지내고, 당제 같은 것은 또 부락별로 분화되는 것을 볼 때, 죽음의 위협이나 두려움이 클수록 공동체적 성격의 돌봄이 이루어지고, 두려움이 작으면 부락별로 소그룹화되며 배타성을 띠며 행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자 중심의 돌봄의 성격을 더 잘 보여주는 것 같다.

3) 죽음 상황에서의 돌봄원리

여기서는 죽음 상황에서의 돌봄이 어떤 문화적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진술한 연구결과를 보면 죽음상황에서의 돌봄은 집단성, 호혜성, 현실지향성의 원리에 의해 나타난다.

집단성은 죽음 상황에서의 돌봄이 일차적으로 혈육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돌봄이 남계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이러한 돌봄을 강화시키는 것이 효부상이다. 대한노인회 지부인이 지역 노인회에서 1년에 한 사람씩 효부상을 주고 있는데, 이는 각 부락별로 돌아가며 주로 임종 직전의 노인을 돌본 며느리들이 받고 있었다. 이는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돌보지 못해도 형식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 ‘효’를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한 것 같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 같다. 또한 이곳을 살기가 적합하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외지에서 시집온 여자들은 도망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 같다. 이는 사위가 병든 장모, 장인을 잘 돌보아도 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이 돌보며, 딸도 없을 경우에는 시집조카들이 돌본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주위에 친·인척들이 많이 살기 때문이다. 아들이 없는 경우, 사후 돌봄은 딸이 맡는다. 이러한 집단성은 특히, 거리제에서 잘 나타나며 망인이 친·인척들에게 하직인사를 하는 과정을 통해 그 집단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더 강화해 준다. 위친제의 경우도 친척, 같은 부락민끼리 하는 경우가 많다.

호혜성은 특히 초상 날을 때 마을에서의 돌봄에서 위친제로 나타난다. 마을에는 몇 개의 위친제가 있어서 초상시 서로 돌봐준다. “그 사람 왔었으니 나도 가야지” 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철저한 호혜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외지 사람들이 많은 마을은 별로 문상을 오고가지 않는다. 외지 사람들이 많은 마을에 위친제가 없는 것에 대해 흰 주민은 인간의 도리를 모른다고 다음과 같이 평가절하한다. “연합국, 중구난방이여... 조문대길지도 몰라, 그 동네에서 해결해... 합중국들이 모였으니 계라는 것이 없어.” 과거에는 마을에 초상이 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머리를 안감고, 빨래를 못하게 하는 등 암묵적인 제약이 있었다. 이는 위친제 제원이 아니더라도 초상날 집에 가서 도와주라는 의미였다고 하며 여기에 호혜성이 잘 반영되어 나타난다. 묘사이는 위친제나 마을 단위보다는 종교단체 중심의 소공동체가 형성되어 호혜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지향성은 특히, 이 마을이 과거부터 자역재해를 많이 입었던 지역이어서 죽음은 절대적인 신성에 대한 ‘부정(不淨)’에 따른 벌이라 생각하여, 돌봄에서 산자 중심의 현실지향성이 더욱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묘사이는 상업적, 물질주의적 사고가 팽배해지면서 현실주의적인 경향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과거에는 임종 후 즉시 시신이 굳기 전, 대령 전에, 성복제를 지낸 후에 망인의 천도를 위한 셋김굿을 하였다는데서 알 수 있다. 방의 기방 구석에 종이를 달아 ‘해(海)’ 자를 써서 거꾸로 붙여 놓았는데, 이는 망자를 위한 천도의 역할도 있지만 산자에게 ‘뒷탈없이 해달라는 맥이지’ 하는 말을 볼 때 산자 중심의 사고에서 행해졌던 것 같다. 또한 초상시의 상차림이나, 탈상 등의 형식도 ‘상주 마음이야. 상주가 허락하면 된 것이야’ 하고 별다른 갈등없이 약소화되고, 산자 위주로 편하게 쉽게 바뀌는 것에서 볼 수 있다. 매장시 분봉을 만들고 제사를 지낼 때도, 망인을 잃은 애닦은 심정이 아니라, ‘어머님(아버님) 나~입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우리 자손들 다 잘되게 해주세요’, ‘고기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등 산자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에게의 발복을 기원한다. 또한 아직까지 행해지는 갖가지 위령제나 당제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들도 이런 현실지향적인 사고에서 기인된다.

V. 논 의

본 연구 지역주민들은 죽음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부정타서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다. 특히 육보다는 혼을 중시하고, 죽어서 혼이 남아 자손을 통해 삶이 지속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는 이흥우, 이계학, 박재문, 유한구, 황인창, 김한승, 장성모(1988)이 한국인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과 동일

한 인격적 대우를 받으며, 죽음은 삶의 연장이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본다. 이 지역의 매장 풍습이 초보이었다는 것과 뼈에 자취가 생기는 것을 아직까지 두려워한다는 것은, 혼(髣)을 중시하며 이는 순간적인 삶보다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죽음시 돌봄을 보면 본 연구에서 정상적인 죽음의 경우 주요 돌봄담당자는 혈족 중심의 남계친 중심의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돌봄을 다룬 최영희, 고성희와 강신표(1992) 및 조명옥(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정상적인 죽음의 경우 대개가 노인들이 한두 가지의 질병을 앓다가 사망하기 때문에 노인 돌봄의 주요담당자가 생전은 물론 사후 돌봄까지 책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방법과 주제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미국에서는 전형적으로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 노인을 주로 돌보는 사람은 배우자이지만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딸이 주요 돌봄담당자가 되었는데(Cantor, 1991; Hasselkus, 1993; Horowitz, 1985; Pratt, Jones, Shin & Walker, 1989; Stones, Cafferata, & Sang, 1987), 이는 한국의 공동체성, 즉 집체성 문화와는 대비되는 개체성을 반영하는 문화적 차이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임종시에는 가족, 자손들이 주로 돌보는 기능을 담당하지만 임종 후에는 위친계원이 중심이 된 마을 중심의 돌봄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서 개인의 죽음은 사회적 죽음, 공동체의 죽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지역은 제주도에서 장례 민속지를 수행한 전경수(1994)의 연구와 치상을 목적으로 한 계(契)의 명칭이나 제(祭)의 명칭이 달랐을 뿐 장례과정의 공동체적 메카니즘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정상적인 죽음시에는 유교적 장제가, 비정상적인 죽음을 당한 경우에는 무속적 장제가 수행되었다. 전경수(1994)의 연구에서도 비정상적인 죽음을 한 경우에 본 연구결과와 일치되게 무속적 장제가 수행되었다. 유교의 장법과 제시에서는 의무를 다하는 형식을 취할 뿐 구체적으로 사령과 만날 수는 없으나 무속은 사령과 가족을 연결시키며 특히 무속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자보다는 원한이 강한 사자를 위로하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제에서 이러한 사령의 원한을 해소하는 메카니즘을 다할 수 있다(최길성, 1991). 죽음이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일반적으로 인간이 죽으면 자식들에게 공포와 존경의 두 가지 감정을 수반시키는데, 존경이 효도를 바탕으로 해서 유교식으로 형식화되었다면, 한편 무속은 공포를 다루는 것이고,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복합된 기능을 한다(최길성, 1991). 이처럼 장제를 통해 죽음시 돌봄의 기능이 수행되고 있는데, 이는 망자를 위한 돌봄이기도 하지만 산 자가 해를 입지 않기 위한 산 자 중심의 돌봄이기도 해서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풍수와 관련성도 나타났다. 이는 시신이 편안하게 안장될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함으로써 그로부터 보답과 혜택을 제공받는다(김주희, 1992)는 생각이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길성(1991)은 풍수의 메카니즘과 유교의 효를 보다 신앙적으로 만드는 팔력소가 된 것이 무속신앙이라는 점에서 풍수와 유교, 무속신앙은 복합적인 존재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유교, 풍수, 무속 등이 어우러져 죽음관의 근저를 형성하였다. 또한 죽음에 대한 돌봄행위는 현실적이고, 공동체적인 성향이 강했으며, 조상과 가족간에 그리고 이웃간에도 평소의 인간관계에 의한 상호부조의 돌봄이 행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정상적인 죽음에서는 유교적인 장제가 비정상적인 죽음에서는 무속적인 장제가 더 두드러진 돌봄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그들의 기층에 자리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초자연적인 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단기 표층에 국한된 변화로 해석될지라도 어쨌든 돌봄행위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변화를 보였는데, 이 변화는 본 연구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지만 근대화, 상인화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며 죽음상황에서의 돌봄에서 이러한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 나타난 죽음상황에서의 돌봄 원리 중 집단성은 임종을 하나의 사회적 사건이라고 간주하여 집단성의 원리를 제시한 강신표(1990)의 주장과 일치되며, 암으로 진단받은지 4개월-2년 이내의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비교하는데 있어서 다소 무리는 따르나 그들이 병원과 가정에서 행한 돌봄에 초점을 둔 원종순(1994)의 연구의 연관계성과도 통하는 원리라고 생각된다. 이와같이 우리 사회에서 죽음은 개인에 국한되는 사건일 뿐 아니라 집단적,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강신표(1990)의 급수성과 원종순(1994)의 서열성에 해당하는 원리를 찾아볼 수는 있으나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본 연구지역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사는 섬으로 계층간에 비교적 반상계급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적은 탓인 듯 하다. 대신 장제에 있어서도 전통이라든가 원칙보다는 편의나 이득이 앞서는 현실지향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전술한 바 있듯

이 본 연구지역의 지역적, 환경적 영향으로 죽음을 절대 신성에 대한 '부정'에 따른 벌로 간주하여 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상자들의 죽음관과 죽음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돌봄행위 및 그 의미를 탐색할 목적으로 문화기술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지역은 전북 부안군에 속해 있는 한 섬이었으며, 주 제보자 4명의 도움으로 연구참여자로 성인 남녀 17인을 선정하여 1997년 10월부터 1998년 7월에 걸쳐 면접과 참여관찰을 실시한 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죽음관은 호상의 조건을 갖춘 좋은 죽음을 하여 조상신으로 대접받으며 자손과 함께 영원히 존속하기를 바랐고, 비정상적인 죽음은 부정한 죽음으로 간주하였으며 그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죽음의 원인을 초자연적 현상, 절대적 신성에 의미를 부여했다.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인 죽음이든 현재 발복적인 사고가 강하게 나타났고, 죽음은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가족의 사건, 공동체의 사건으로 확대되고 그 후손을 위한 삶과 죽음으로 모든 것이 해석되었다.

죽음상황에서 돌봄행위는 가족과 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정상적인 죽음에서의 돌봄은 일반적인 초상의 절차나 의례를 수행하였으며 비정상적인 죽음에서는 거기에 '부정막이'를 덧붙여 행했다. 이러한 죽음상황에서의 돌봄행위는 공동체적인 성향이 강했으며, 조상과 가족간에 그리고 이웃간에 호혜성을 띠고 있었고, 현실지향성 원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은 개인을 넘어선 가족, 공동체의 사건이며, 죽음관이 죽음상황에서의 돌봄행위에 반영되어 나타나므로 임종 및 죽음에 대한 간호교육 및 간호중재의 내용에 이러한 측면이 고려되고 포함되어야 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일 지역에 국한되었기에 추후 다양한 대상, 다양한 상황,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물론 포괄적인 접근을 위해 타 분야와의 학제적 연구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신표 (1990). 간호교육자 연수강좌 : 임종과 간호. 이화대학교 간호대학.
- 권혜진 (1980). 죽음의식에 관한 연구 -의·간호계 종사자 및 학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길숙영 (1993). 죽음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귀분 (1977).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조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옥 (1992). 임증환자 가족이 지각하는 죽음과 관련된 문제. 이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자, 김지아, 김혜중 (1991). 죽음 관련 연구의 현황 : 한국의 간호학 및 의학 정기 간행 학술지를 대상으로. 고대의대논문집, 28, 569-584.
- 김순자 (1994). 한민족 노인의 죽음 정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열규, 성현경, 조옥라, 정하영, 박용옥, 조혜정, 이부영, 주종연, 김기웅, 김병모, 권오성, 이보형, 오세영, 강진옥, 이상일, 황루시, 서경수, 정진홍 (1991). 한국문화의 뿌리. 한국문화서점시리즈 제1집. 서울: 일조각.
- 김영순 (1989). 말기암환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이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황재운, 허성철, 김무열, 김태홍, 윤덕향, 이원구, 이정덕, 장호 (1995, 3월 27일). 숨쉬는 땅 숨쉬는 문화 : 위도 4. 전북일보, 5쪽.
- 김주희 (1992). 품앗이와 정의 인간관계. 서울: 집문당.
- 김혜련 (1991). 노인이 지각한 죽음에 대한 불인도 -유료 및 무료시설과 재가노인의 비교-. 이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석춘 (1992).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죽음의식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22(1), 68-80.
- 박재현 (1990). 입원한 노인환자의 자아존중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관한 연구. 이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자 (1989). 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케어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한간호, 28(3), 52-67.
- 왕매련, 조원정, 김조자, 이원희, 유지수 (1990). 호스피스케어에 대한 평가 연구. 대한간호, 29(4), 51-72.
- 양애련 (1992). 세브린스 호스피스 추후관리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31(2), 51-69.
- 원종순 (1994). 죽음을 앞둔 암환자의 돌봄에 관한 연구. 이화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계주 (1974). 죽음의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학회

- 지, 4(1), 162-178.
- 이수창 (1993). 말기환자 가족의 죽음에 대한 공포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애 (1983). 임종환아 어머니의 간호요구에 관한 일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옥자 (1982). 임종과 죽음에 관한 연구 : 성직자와 의료인의 비교. 대한간호, 21(1), 66-78.
- 이우자 (1995). 말기 암환자의 체현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이화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섭 (1992). 암으로 자녀를 잃은 가족의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이화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흥우, 이계학, 박재문, 유한구, 황인창, 김한중, 장성모 (1988). 한국적 사과의 원형.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효경 (1985). 죽음에 대한 태도조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미란 (1981).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이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경수 (1994). 한국문화론 : 전통편. 서울: 일지사.
- 조명옥 (1992). 전통사회의 노인을 위한 돌봄행위에 관한 문헌기술적 연구. 이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숙 (1976). 죽음을 앞둔 환자에 대한 간호학생과 간호원의 태도연구. 이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공옥 (1991). 말기 암 환자의 임종 경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건성 (1991). 한국의 조상숭배. 서울: 예전사.
- 최영희, 고성희, 강신표 (1992). 문화간호를 위한 한국인의 민간돌봄에 대한 연구 : 노인돌봄을 중심으로. 간호와 한국문화. 서울: 수문사, 445-555.
- 하효길, 박대순, 정종수, 정승웅, 김종대 (1984, 1985, 1987). 위도의 민속. 국립민속박물관.
- Benoliel, J. Q. (1994). Death and dying as a field of Inquiry. In Corless, I. B., Germino, B. B., & Pittman, M. (Eds). Dying, death and bereavement :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other ways of knowing. Boston: Jones and Bartlett Pub.
- Bergen, ANN. (1992). Evaluating Nursing Care of the Terminally Ill in the Community : A Case Study Approach. Int. J. Nurs. Stud., 29(1), 81-94.
- Brabant, S., Forsyth, C. J., & Melancon, C. (1992). Grieving Men : Thoughts, Feelings, and Behaviors following Deaths of Wives. The Hospice Journal, 8(4), 33-47.
- Cantor, M. (1991). Family and community : Changing Roles in an Aging Society. The Gerontologist, 31(3), 337-346.
- Gates, M. F., Kaul, M., Speece, M. W., & Brent, S. B. (1992). The Attitudes of Beginning Nursing and Medical Students toward Care of Dying Patients : A Preliminary Study. The Hospice Journal, 8(4), 17-32.
- Hasselkus, B. R. (1993). Death in Very Old Age : A Personal Journey of Caregiving. Amer. J. Occupational Therapy, 47(8), 717-723.
- Horowitz A. (1985). Sons and Daughters as Caregivers to Older Persons : Differences in Role Performance and Consequences. The Gerontologist, 25(6), 612-617.
- Hunt, M. (1992). Scripts for Dying at Home-Displayed in Nurses', Patients', and Relative Talk. J.A.N., 17, 1297-1302.
- Johnson, G. R. (1994). The Phenomenon of Death : A Study of Diploma in Higher Education Nursing Student's Rality. J.A.N., 19, 1151-1161.
- Jones, S. A. (1993). Personal Unity in Dying : Alternative Conceptions of the Meaning of Health. J.A.N., 18, 89-94.
- Kiger, A. M. (1994). Student Nurses' Involvement with Death : the Image and the Experience. J. A.N., 20, 679-686.
- Leininger, M. M. (1978). Transcultural nursing : concept, theories, and practices. New York: Wiley.
- Leininger, M. M. (198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nursing. Prlando FL: Grune & Strtton.
- Lindley-Davis, B. (1991). Process of Dying : Defining Characteristics. Cancer Nursing, 14(6), 328-333.
- Pratt C. C., Jones L. L., Shin H. Y. & Walker A. J. (1989). Autonomy and Decision Making Between Single Older Women and Their Caregiving Daughters. The Gerontologist, 29(6), 792-797.
- Robbins, I., Lioyd, C., Carpenter, S., & Bender, M. P. (1992). Staff anxieties about death in

- residential settings for elderly people. *J.A.N.*, 17, 548-553.
- Seale, C. (1992). Community nurses and the care of the dying. *Soc. Sci. Med.*, 34(4), 375-382.
- Smith, D. C. & Maher, M. F. (1993). Achieving a healthy death : The dying person's attitudinal contributions. *The Hospice Journal*, 9(1), 21-32.
- Spencer, L. (1994). How do nurses deal with their own grief when a patient dies on an intensive care unit, and what help can be Given to enable them to overcome their grief effectively. *J.A.N.*, 19, 1141-1150.
- Spradly/이희봉 역 (1989).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 방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Stones, R., Cafferata, G. L., & Sang I. J. (1987). Caregivers to the Frail Elderly : A National Profile. *The Gerontologist*, 27, 616-626.
- Wilcox, K. (1982). Ethnography as a methodology and its application to the study of schooling : A review. in *Doing the Ethnography of Schooling*. ed. by Spindler, G.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 Abstract -

Key concept : Notion of death, Caring behaviors

The Notion of Death and Caring Behaviors in one Community

Ko, Sung-Hee* · Lee, Young-Hee**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perceptions of toward death and caring behavior of lay persons in one community : One Island in Puan County, Chonbuk.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was ethnography. For this study, the fieldwork was conducted from October 1997 to July 1998. Data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 and participant observations.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17 persons of both sexes. The key informants were four specific peopl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The people perceived two different kinds of death. Normal death, which means death from old age. The person was respected as an ancestor God and was believed to exist forever with their offspring.

Abnormal death was regarded as negative, many had fears toward this kind of death. The causes of abnormal death were supernatural phenomena and had absolute holy meanings.

Whether death was good or bad, the death was not personal, but collective events as family or community affairs and was interpreted as death and birth for their offsprings.

Funeral rites were family-centered and/or community-centered. They did normal procedures for normal deaths for abnormal deaths, there were many protective ceremonies(BuJungMagi : the prevention of the taboo of uncleanness) for the remaining people. These ceremonies combined confucism and shamanism. Caring behavior for dying persons was ruled as community-centered, reciprocal and reality-centered principles.

* Dept.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

** Dept. of Nursing, Kwandong Univ.